

6월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일시 및 장소 : 2023.6.27.(화) 오후 3시, 12층 대회의실

참석 위원 : 손영준 위원장, 안호림 부위원장, 허인순, 김희중, 서신석,
진한수, 안성희, 이상헌, 이성우 위원 9인(강건기 위원 서면제출)

회사 참석 인원 : 보도본부장, 시청자센터장, 시청자센터부장

■ 주요 내용

▲ 손영준 위원장

- 성원이 되었습니다. 6월 시청자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의견을 말하겠습니다. 연합뉴스TV는 이번 6월 공영언론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현안을 의제화해, 공론장 소통에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관심을 끄는 것은 6월15일 중국 비밀경찰서로 의심되는 시설에 대한 제주발 기사입니다. 한중간 긴장이 고조된 시점에 불거진 이슈에 대해 연합뉴스tv는 방송 역량을 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후속보도가 이어지길 희망합니다.

- 북한 발사체 서해 인양 기사와 관련해 현장을 연결한 LIVE 방송이 좋았습니다.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한 발 빠른 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연합뉴스TV가 보유하고 있는 중계차 몇 대 인지, 그리고 운영실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연합뉴스TV가 중계차 LIVE 방송을 자주 시현해 현장감 있는 보도를 제공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사회 현안에 대한 전문성 있는 보도가 강화되기를 희망합니다. 예를 들어 의과대학 정원 증원 문제, 의사 전공 쏠림 현상에 대해 중립적 보도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와 의협의 입장을 중계하는 보도입니다. 이런 태도는 필요할 때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관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요즘 학원가에 초등학교 의대준비반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입시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 대학 교육, 사회, 보건의 미치는 폭발력이 대단히 큰 사안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심층 보도를 통해 논의를 촉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다 분명한 입장을 공론장에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 중계차는 저희가 한 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계차 운영은 그날 주요 이슈에 따라 배치합니다. 보통은 국회에 주로 대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중계를 중계차만 갖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른바 백팩이라 부르는 카메라와 연결해서 전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29대 있습니다. 간단한 중계는 그걸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계차는 한 대밖에 없지만 웬만한 중계는 어디서든 다발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 의대 쏠림의 문제점은 저희가 여러 차례 기획 보도를 했습니다. 지난 3월에도 뉴스프리즘을 통해서 정치부, 경제부, 사회부와 함께 조명을 해보았지만 최근 한달간 보시기에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만 계속 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계적인 중립 보도보다는 분명한 입장을 공론장에게 제시해 주기를 바란다는 말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공정한 보도, 객관성 있는 보도에 있어서 기계적인 중립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계적인

중립이 어떤 측면에서는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입장을 담아서 보도를 할 때에는 그만큼 저희도 정확한 관점과 시각을 정해야 되거든요. 신중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안호림 부위원장

최근“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는 수능 출제 배제하라”는 발언이 교육현장에 큰 파장을 일으킨 보도와 성소수자 권리 행사 vs 동성애 옹호를 나뉘는 퀴어 축제에 대한 보도 내용에 대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능이 불과 5개월 남긴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갑작스런 논란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때문인데요. 연합뉴스에서는 16일 뉴스프라임에서 '쉬운 수능 어려운 수능 얘기한 게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같은 날 김은혜 홍보수석 브리핑은 뉴스리뷰에서 문책 이어 감사... 불호령 맞은 교육부, 6월 17일 토요와이드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사교육 내모는 건 불공정... 카르텔 경고장으로 교육개혁 의지에 대한 이슈를 연일 비중 있고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 신속한 보도로 시청자의 정보습득과 간결하고 평이한 앵커의 멘트로 시청자가 쉽게 이해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었는데요. 해당 보도가 윤석열 대통령 카르텔 경고장, 대입 국장 경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감사 등 대통령과 교육부의 엇박자, 메시지 혼선 등에만 지나치게 초점이 쏠려있다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불거진 수능난이도 논란으로 일선 학교 현장과 학원가가 겪고 있는 공포와 불안에 대해서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백년지대계인 교육 정책의 잦은 변경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겪고 있는 고통과 혼선에 대한 분석과 일선 현장의 공황 상태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와 전문가적 시선이 눈에 띄지 않았는데요. 시청자들이 연합뉴스TV에 기대하는 건 뉴스전문채널의 장점을 살린 냉철한 분석, 이해 관계자들의 다양한 반응 등 지상파와 차별화된 보도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 두 번째는 퀴어 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퀴어 축제는 성소수자 권리 행사의 찬성 의견과 동성애 옹호·조장을 주장하는 반대 의견이 극명하게 나뉘는 우리 사회의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입니다. 불별더위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던 18일, 대구에서는 폭염이 무색할 만큼 퀴어 축제 행사장 도로점용 허가를 놓고 대구시청 공무원과 대구시 경찰 간에 거침없는 설전과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연합뉴스TV는 6월 17일 뉴스 20, 뉴스 24에서 대구시청과 대구시 경찰이 퀴어 축제 도로 점용을 두고 다투는 이례적인 사안을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퀴어 축제'라는 이슈의 파급력과 뉴스메이커 홍준표 대구시장의 화제성까지 더해져 주목을 받았는데요. 해당 보도는 홍준표 대구시장에 포커스를 맞추며 도로 불법 점거라는 대구시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합법 시위 보장이라는 경찰의 입장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었다는 생각이 들게 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보도 중간과 말미에 2번에 걸쳐 인터뷰를 자막과 함께 상세히 보도한 반면, 대구시 경찰의 입장은 별도 인터뷰 없이 기자의 짧은 리포팅을 자막으로 처리했습니다. 대구시청과 대구 경찰 간 '도로 점유 정당성' 문제가 충돌이 주된 주제인데 직접적 당사자가 아닌 대구 퀴어 문화 축제 조직위원장 인터뷰도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경찰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 기계적 균형과 동성애자라는 시청자의 관심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되나, 맥락에서 벗어나 불쑥 끼어든 인터뷰라는 생각입니다. 세간의 관심이 쏠린 인물을 부각하고, 대중이 흥미를 갖는 사안을 집중 보도해 시청자의 호기심과 궁금증을 풀어주는 것은 언론의 순기능 중 하나입니다. 다만 특정인에 편중되고 편향된 시각을 배제하고 정론직필의 균형감과 냉철함을 견지하는 것은 언론의 사명일 것입니다. 나아가 퀴어 축제의 문제는 헌법에서 보장된 집회와 자유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언젠가부터 한국 언론의 집회에 대한 보도는 기본권 보장의 문제임에도 대중의 불편이나 도로점유의 합법성 여부 등 지엽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사실상 집회가 허가제로 변질되는 것에 대해 목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문제는 각 주체들의 주장이 헌법상 권리 보호의 차원에서 누가 더 타당성 있는가를 따져봐야 하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한 연합뉴스TV의 보도는 기계적 균형을 추구하다 보니, 언론이 해야 할 해석의 기능, 판단의 기능은 등한시하는 듯 보입니다. 기계적으로 균형을 맞추는 기사의 문제점은 각 이해당사자들이 모두 동등하게 옳거나 동등하게 틀렸다는 인상을 주기 쉽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의미에서 객관보도란 무엇인가 보다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 이런 문제는 개혁을 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시적인 혼란이 있고 또 이해관계자들에 따라서는 반발도 있을 수 있는 점 충분히 알고 있지만, 그래도 사교육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이 공교육 현장에서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금 수능 시스템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된다는 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보도가 대통령과 교육부의 엽박자, 메시지 혼선 지나치게 특종에 쫓려 있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학원가, 학부모, 학생들의 불안 같은 교육 현장의 분위기도 다뤘습니다. 대통령 발언의 충격파, 교육부와 엽박자에 비해서는 보도의 비중이 낮았다고 지적을 하셨는데요. 교육 현장의 불안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자칫 일부 시청자들한테 오해를 받을 우려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처럼 사교육하자는 이야기냐, 사교육을 옹호한다는 얘기냐 등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수위 조절을 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 대구시의 쿼어 축제 현장에서 시청 공무원과 경찰 간 설전과 몸싸움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어서 다루었는데요. 흥준표 시장 쪽만 일방적으로 다룬 건 아닙니다. 경찰 같은 경우는 언론 접촉에 약간 소극적인 측면이 있어요. 대신 축제 조직위원장의 발언, 경찰의 인식과 비슷한 맥락이어서 그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기사 맥락을 보시면 경찰 입장도 충분히 들어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요. 형식적인 측면에서 대구시는 들어가고 경찰은 안 들어가서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앞으로는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균형을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허인순 위원

- [현장의재구성] 수백 명 태운 난민선 전복...반복되는 지중해 비극, [뉴스메이커] 그리스서 난민선 침몰...반복되는 지중해 난민 비극, 리비아에서 이탈리아로 향하는 바닷길은 매우 위험하지만, 이주민들은 목숨을 걸고 항해에 나서고 있다. 최근 계속되는 전쟁과 내전, 빈곤이 이들을 바닷길로 내몰고 있음. 특히 유럽으로 가는 밀입국 경로인 지중해에서, 이 같은 참사가 되풀이되고 있다. 지중해를 건너다 숨진 난민이 지난 10년간 3만 명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을 정도이다. 전 세계 난민 규모도 급증 추세입니다. 유엔난민기구는 분쟁과 박해 등을 피해서 고향을 떠난 난민의 수만 1억 1천만 명에 달한다는 추산. 난민은 늘고 있는데, 정책은 강경해지면서 이런 비극이 끊임없이 반복될 가능성에 대해 보도, 현장의 재구성에서는 영상으로 난민선 전복과 반복되는 현실상을 차분하게 잘 구성했고, 뉴스메이커를 통해선 지중해 난민선 전복으로 인한 인명 사망수, 유럽 국가들의 난민 입국 반대로 인한 현실적인 대책의 필요성에 대해 잘 보도됨

- 원전 오염수 방류' 눈앞에 둔 일본, 전방위 국제여론전, 송고시간 2023-06-16 13:31:28

조만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할 예정인 일본이 국제 여론전을 부쩍 강화하고 있습니다. 해양 방류를 강력히 반대하고 일본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국가들에 대해선 동시에 압박 수위도 끌어올리는 모습인데요.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태평양 섬나라들의 반응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일본의 이 같은 여론전이 얼마나 어디까지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란 관측도 적지 않습니다.

- 마트서 사라진 천일염..."집에서 가려써도 밖에선 불안" 송고시간 2023-06-15 19:10:13, 한 마트의 이달 소금 매출은 1년 전보다 55%나 늘었고, 이번주만 보면 무려 165% 급증했습니다. <송상근 / 해양수산부 차관> "우리 천일염은 안전합니다. 2011년 원전 사고 후에도 천일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286회 실시하였는데 그때도 방사능 물질은 전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천일염 가격 상승과 품귀가 이어지면 정부는 수매 후 할인 방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가까워질수록 커지는 소비자들의 불안을 얼마나 잠재울 수 있지는 미지수입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천일염을 시작으로 해산물 전반의 불신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일본은 외교전을 통해 주변국을 설득하고 있고, 특히 인접국인 우리나라의 수산물이나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는 당연하다고 생각된다. 해양수산부 차관의 설명은 원전사고 후에도 천일염 방사능 검사를 286회 실시하였고 방사능 물질 검출은 없었다고 설명했는데, 이번에는 대대적으로 오염수를 방류하는 상황이라 좀더 방사능 물질 검사 기준, 비교자료 등을 예시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보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근 윤석열 정부의 친일외교로 국민의 안전보다 국가 간 외교가 우선시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됨

▲ 추승호 보도본부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는 언론 입장에서든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야 간의 입장이 워낙 갈려 있어서요. 일단, 정부의 말을 믿어야지요. 다만, 해양수산부 차관이 천일염에 대해서 방사능 오염이 없다 설명한 부분을 보도할 때는 가급적이면 어떤 근거 가지고 얘기했는지 저희가 조금 더 취재해서 시청자들에게 제시한다면 불안감이 적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근거를 취재해서 제시하는 쪽으로 노력해보겠습니다.

▲ 김희중 위원

- 감사원의 국민권익위원장 근태 감사 결과가 '속보'를 낼 만큼의 시의성이나 중요성이 있는 뉴스인지 의문... , 지난 6.9일 오후 5시 반경 뉴스17 중 앵커가 감사원 "전현희, '오전 9시 이후 출근'이 90% 넘어"라는 '속보'를 내보냄. 주요 내용은 감사원의 국민권익위원장 감사 결과, 위원장이 오전 9시 이후 출근이 90%가 넘고, 특정 사안에 대한 유권해석 개입, 실무진 보고 내용 바꾸기 등을 확인했다는 뉴스였음. 이 뉴스는 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에 대한 근태 감사 결과라는 점에서 뉴스를 내는데 문제없어 보이나, 정규 뉴스 중 후속 뉴스에 앞서 앵커가 속보를 내보낼 만큼 중요하거나 시의성이 있는 뉴스로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 무엇보다 이 뉴스의 취재원은 감사원이 실시한 감사결과를 일상적으로 보도한 내용인 만큼 필요하다면 관련 내용을 취재해 다음 뉴스 시간에 리포트해도 시의성이나 뉴스로서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은 아님. 언론이 속보를 너무 남발되거나 스케일이나 무게감이 없으면 뉴스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진다고 생각함. 따라서 연합뉴스TV의 속보 기능이 단순히 시청자의 눈과 귀를 잡아 두기 위한 방편이나 뉴스를 바로바로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

진하는 것이 아니라면 속보의 스케일과 무게감,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사이코패스 지수 보도...단신 처리 아쉬워, 지난 6.15일 '뉴스리뷰'에선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이모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검사 결과, 지수가 연쇄살인범 강호순과 같은 수준이라는 단신이 나감. 단신의 내용은 검사 결과 사이코패스 지수가 27점을 기록하며 연쇄살인범 강호순과 같고 부산 또래 살인 피의자 정유정보다 1점 낮다는 내용이 전부였음.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공분을 샀던 사건으로 연합뉴스TV에서도 재판 과정과 가해자 이씨에 대한 뉴스를 지속적으로 보도해 왔음에도 재범 우려와 사회적 격리 필요성에 대한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사이코패스 검사 결과에 대해서만큼은 지나치게 짧게 보도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음. 따라서 연합뉴스TV는 이 뉴스를 단신 처리하기보다 가해자 이 모 씨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은 물론 공격적인 특성과 통제 능력 결여, 반사회적 성격 등을 고려하면 법 준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는 재판부의 판시, 검사 결과에 대한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취재해 보도할 필요가 있었음. 이를 통해 가해자 이 모 씨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위험한지 시청자에게 알려줘야 했기 때문임. 앞으로 연합뉴스TV는 여성이나 사회적 약자 대상의 강력범죄 발생 시 가해자의 추가 보복 등 2차 범죄가 우려되는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취재하여 보도할 필요가 있음.

▲ 추승호 보도본부장

- 뉴스 보도 중에 내보내는 속보는 사실 좀 딜레마가 있습니다. 아주 긴급 속보인 경우는 편하게 내보내면 되는데 이런 경우는 조금 애매하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감사 보고서 내용 자체는 궁금한데 내용 중에서 '오전 9시 이후 출근 90%'를 속보로 내보내야 되는지 여부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치부장은 감사보고서 내용 자체에 대해 워낙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나오는 대로 내보냈다 이런 설명인데요. 속보로 내보내기에 내용이 조금 사소해 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들이 해당 내용이 '속보성 이슈인가'라고 생각할 정도의 내용은 가급적 자제토록 하겠습니다.

- 저희도 부산 돌려차기 사건 관련 보도를 많이 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의 사이코패스 지수는 '리포트로 다루기에 다소 약하지 않은가' 단신으로도 충분하다는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사이코 패스의 위험성 등 관련 팩트를 모아 종합처리해도 무방하다고 처리한 것 같습니다. 공분을 사는 강력범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팩트를 모아서 자세하게 보도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마련해보겠습니다.

▲ 서신석 위원

- 2023-06-17 18:26:07 : [토요와이드] 싸고 구하기 쉬워진 마약...10대에 더 빨리 퍼져, 보도 내용, "SNS를 통해 마약을 쉽게 구하고, 가격도 상당히 저렴, 필로폰을 구하는데 쓴 돈은 3만원을 넘지 않았습니다. ..., SNS에서 대리 구매를 부탁하면 처방전을 손에 넣기까지 반나절이면 충분합니다." 청소년들이 모방 범죄를 유발 할 수 있는 뉴스 보도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해 가며 보도 하는 것을 자제 했으면 한다. 아산병원 연구팀 미디어 영향 분석--> 자해 다룬 방송 후 청소년 자해 3배 급증(2018년 3월말 전후 건수 비교 10~14세 환자 0.9명→3.1명↑)

- 2023-06-05 07:25:59 : [출발600] 특목고 간 서울 중학생 46% 강남3구·목동·중계 출신, 보도

내용, "특목고 간 서울 중학생 46% 강남3구·목동·중계 출신, 과학고와 외국어고, 국제고 등 특목고와 자율형 사립고에 진학한 서울 중학생 절반 가까이가 강남 3구와 양천구 목동, 노원구 중계동 등 '선호학군' 출신으로 나타났습니다. ~~~" 학교 알리미 공시 자료를 그대로 보도하고 끝났는데, 시청자가 받아들이기에는 학생들이 좋은 학교를 진학하기 위해서는 강남3학군과 목동 등에서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지역적인 갈등과 사교육을 조장하는 뉴스보도로 받게 느껴지지 않는다. 연합뉴스TV가 공영방송으로서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학군간의 격차 해소 방안이나 현 정부의 추진 정책에 대한 평가 및 비판 등의 균형 잡힌 보도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 학교알리미에서 공시한 내용을 아나운서가 그대로 읽는 보도는 공영방송의 책임과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앞으로 연합뉴스TV가 개선을 해야 할 사항이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 사건 보도 할 때마다 부딪히는 부분입니다. 범행 수법, 마약 획득 경로, 방법 등을 보도하다 보면 자칫하면 모방범죄를 부추길 수 있고, 그쪽으로 가는 길을 알려줄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방송이 시청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체이니까 보도에 지장이 되지 않는 선이라면 모방 범죄를 부추기거나 범행의 길을 알려주는 내용은 최소화해서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 특목고와 자율형 사립고 진학 통계는 그럴 것이라고 여겨지던 내용을 통계 수치로 확인했다는 정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보도를 받아들이는 분의 반응을 일일이 고려해서 기사 처리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뒷부분이라도 약간 문제의식을 언급했다면 그런 오해는 피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강건기 위원(서면제출)

- <도로 빗물받이 현장 점검 뉴스 관련> 6.6 일자 뉴스 08에서 꼭 막힌 빗물받이...장마·폭우에 또 역류할라.. 지난해 여름 장마로 도로가 침수된 상황에 따라 도로에 있는 빗물받이 막힘 상태를 기자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상황을 점검, 보도하고, 문제점들과 지자체의 스마트 빗물받이 설치를 함께 보도한 것은 좋았다고 생각함. 그리고, 스마트 빗물받이의 좋은 점과 아울러, 서울시의 빗물받이 위에 쓰레기 투기 금지 등 막힘을 방지하는 노력을 점검한 부분은 다가올 여름 장마철을 앞둔 현 시점에서 적절한 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 <플라스틱 줄이기 보도 관련> 6.5 일자 뉴스 리뷰에서 '플라스틱 줄이기 느린 걸음...'시민 체감정책 필요'에서 환경의 날을 맞아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를 보도하는 뉴스에서 정부의 다양한 정책의 현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정부의 탈 플라스틱 정책의 한계점을 지적한 것은 적절한 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환경연합의 지적뿐 아니라 정부의 노력에 대한 인터뷰도 함께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 <환경보호를 위한 일상 속 플로깅 보도 관련> 6.6일 뉴스 08에서 환경의 날을 맞아 환경보호를 위해 기자가 직접 플로깅을 하면서 플로깅을 소개하고 홍보하는 것은 좋았습니다. 일상 속 환경운동으로 플로깅을 소개하고,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뿐 아니라 플로깅을 확산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홍보 차원이 아닌 정부의 인력이나 예산 지원 필요하다는 지적은 적절하였습니다. 특히, 플로깅하면서 모은 쓰레기를 처리할 처분장 부족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 <중국 관련 뉴스에서 혐오 장면의 장시간 방영 관련> 6.8일 뉴스 프라임에서 中, 소변기물로 식판 세척.

쥐머리 식당 밥에시끌자막 방송에서 화장실에서 식판을 씻는 중국의 어린이집 장면과 중국 장시성 난창시에 있는 대학 구내식당 음식에서쥐머리이물질 나와 논란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동안 관계자가 쥐머리를 만지고 살피는 혐오 장면을 상당히 오랜 시간 방영하여 시청하는데 다소 불편 하였습니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소변기 물로 식판 세척하거나 식당 급식에 쥐 머리가 나온 것을 살피고 만지는 장면을 여과 없이 길게 노출시킨 것은 시청자들이 불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빨리 처리를 하고 문제 장면을 빠르게 전환하는 등의 편집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 진한수 위원

헬퍼보다 '청소녀 씬터' 찾아야...시설은 태부족, "도와줄게" 가출 청소녀 노리는 '검은 헬퍼' 가출 청소녀들은, 가족이나 학교로부터 보호받는 것을 거부하거나 혹은 보호받을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SNS 등 인터넷을 통해 낯선 어른 등과 접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낯선 어른 등이 처음에는 도움을 주겠다고 접근하여 나중에 해당 가출청소녀를 범죄에 이용하는 경우가 있고, 그들이 이른바 '검은 헬퍼'입니다. 이와 같이 아직 미성숙하다고 볼 수 있는 가출청소녀들은 경제적 이유 등으로 '검은 헬퍼'들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합뉴스TV에서 검은 헬퍼들의 유혹에 쉽게 노출 될 수 있는 가출청소녀들에게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청소녀 씬터라는 대안을 제시하고 알리고자 한 것은 매우 긍정적이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보도에서는 기자가 먼저 '헬퍼를 구한다'는 글을 올렸고, 이를 통해 접촉한 사람(일명 '관악구 헬퍼')의 황당하다는 반응과 변명이 먼저 다루어지고 있는데, 이 보도내용만으로는 어른들이 가출청소녀에게 접근하는 이유 등을 알 수 없어 다소 아쉬움이 남습니다(좋지 않은 목적이 아닐까 의심은 됩니다만, 해당 취재 방식으로는 '헬퍼를 손쉽게 만날 수 있다'라는 정도의 정보만 얻을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해당 보도만으로는 가출 청소녀가 왜 학교나 정부가 아닌 헬퍼를 찾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설명도 다소 부족해 보입니다. 피해청소녀 등의 인터뷰가 더해졌다면 심층적인 보도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청소녀 씬터 대안 보도에서도 정작 청소녀들의 목소리는 찾기 힘들었습니다. 해당 기관을 이용하는 청소녀들이 인터뷰를 꺼리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을지 모르나, 어른들이나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시각보다는 가출청소녀들이 왜 시설에 연락할 수 없는지, 어떤 부분이 개선되었으면 하는지 등 그들의 목소리를 전했으면 더 좋은 보도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애초에 기자가 의도했던 대로 헬퍼의 검은 속셈을 드러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헬퍼의 검은 속셈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함정 취재를 더 해야 할 수도 있는데요. 그 자체가 도덕적, 윤리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점에서 취재에 한계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뉘앙스로만 헬퍼가 검은 속셈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시청자들에게 보여주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헬퍼 취재를 통해 분명히 드러내지 못했다면, 피해 청소녀들을 더 취재했다면 리포트의 취지를 좀더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 안성희 위원

- 철도노조 준법투쟁에 수도권 전철 50여 편 지연 (6/14), 해당 뉴스는 34초 분량으로 지난 6월 14일 오전에 발생한 철도노조 준법투쟁으로 인한 출근 시간대 수도권 전철 50여 편이 지연 운행된 것을 보도한 뉴스였습니다. 아쉬운 점은 34초라는 짧은 분량으로 '지연 운행되었다'는 단순한 사실만을 다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시 철도노조는 수서행 고속열차(KTX) 즉각 운행, 철도 쪼개기 민영화 중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면담 등을 요구하면서 다음 날인 15일 '철도노동자 총력결의대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짧은 분량으로 편성될 수밖에 없었던 한계가 있었더라도 해당 보도가 의미 있으려면 철도노조가 왜 준법투쟁을 벌인 배경을 간략하게 화면에 자막으로 띄우거나 이러한 내용을 담지 않는다면 보도 시각 이후에도 지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용 시 참고하라는 등의 내용이 있었어야 합니다. 유사한 다른 보도를 살펴보면 대부분 준법투쟁의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연 사실만을 다룰 경우 의도하지 않더라도 '준법투쟁에 대한 부정적 인식'만을 전달할 수도 있거나 지연 사실만을 전달하는 의미 없는 보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보도에 유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노조 파업이나 투쟁 관련 보도를 하다 보면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유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조가 파업이나 투쟁을 하다보면 전혀 무관한 시민들이 피해보는 일이 생기게 되고 그런 내용을 보도해야 하지만, 한편으론 노조가 왜 그렇게 밖에 나올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주는 것이 균형 잡힌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철도노조의 준법 투쟁 시작 후 리포트, 현장 중계를 통해 이미 밝혔기 때문에 짧은 단신에 그 부분은 넣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짧은 분량의 단신이지만 뒷부분에 짧게라도 이런 부분을 넣을 수 있는지 검토해보겠습니다.

▲ 이상헌 위원

- 6월 들어 연합뉴스TV 단독보도가 눈에 많이 보였습니다. 특히 6/15이후로 중국 비밀경찰서 관련 단독보도가 여러 차례(6/15, 6/16, 6/19 등) 있었는데요. 지난 연말연초에 모든 언론이 다뤘던 사안이었습디만 최근 들어 관심에서 멀어졌던 이슈였는데, 후속 취재를 통해서 정부당국이 이런 행위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는 입법을 추진한다거나, 보안당국이 제주도 특정된 비밀경찰서 내부를 취재하는 등 적극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또 6/17 뉴스14 뉴스초점 코너에서는 취재를 담당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앵커와 함께 질의응답식으로 단독 보도 내용을 비롯해 해외사례 등 해당 이슈 전반에 대해 설명해 해당 이슈에 대한 시청자의 이해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단독 보도의 경우 보도의 가치적인 측면에서나 연합뉴스TV의 취재역량을 보여줬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 그 외에도 다양한 단독 보도가 있었는데요. 15년 된 불법증축 건축물이 구청에 적발이 되고도 서류상으론 철거완료된 것으로 나타나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다는 내용(6/1, 뉴스워치), 기존 실손 보험을 '전환'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계약을 해지하고 새 보험에 들어놓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례(6/16, 뉴스워치), 버스 분실물에서 마약 추정 물질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선 사례(6/7, 뉴스17) 등 일상 생활 속의 다양한 사례들에 대한 단독보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보도 내용들은 보도전문채널의 단조로운 기사 전달에 치우치는 경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콘텐츠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이나 탐사보도처럼 과도한 비용이나 자원을 들이지 않으면서도 일반기사보다는 조금 더 차별화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감사합니다. 저희가 24시간 보도를 해야 되는 매체인데 기자 인력이 100여 명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독 보도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보도국 구성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준 덕분에 최근에 사회부 사건팀을 중심으로 단독 보도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률이 YTN을 한 2년째 계속 앞서다 보니 방송 단독 무대에서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는 제 보도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시청률과 시청자 제보가 선순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독 보도가 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성우 위원

라면 물가 상승률 13%...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6.5), 최근 들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소비자 물가가 안정세로 접어들었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정작 식품 가격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 서민들의 체감물가는 괴리 현상에 빠져 있다는 평가도 심심찮게 들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에서 6월 2일부터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3.3%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보도로 시작해 3일에는 식품 가격의 상승, 4일에는 여름철 외식 식품, 특히 삼계탕과 냉면 가격 상승에 대해 시민 인터뷰까지 더해져 식품 가격에 대한 서민의 체감을 생동감 있게 전해줬습니다. 다만 5일 뉴스에서는 서민 음식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라면의 물가 상승률에 대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1% 올랐다고 언급하면서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였던 2009년 2월 14.3% 기록 이후 최고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소비자 물가의 먹거리 지표인 가공식품과 외식 부문의 세부 품목 112개 중 31개는 물가 상승률이 10%를 웃돌았다는 설명이 이어지면서 잼이 35.5%로 가장 높았고, 치즈와 어묵 등도 높은 편이었다는 클로징 멘트로 마무리 됐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부분에 대해 아쉬운 점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라면에 대한 다양한 연출 장면 부재와 특정 브랜드에 대한 간접 광고에 대한 우려입니다. 당시 뉴스 화면은 모 판매처의 진열대에 놓인 컵라면과 봉지라면 제품의 모습이 중점적으로 비쳤는데 여기서 시민이 식당에서 조리된 라면을 먹는 모습, 라면 가격표 등 다양한 모습이 노출됐으면 어땠을까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진열된 라면 제품을 계속 비추는 과정에서 특정 제조사의 특정 브랜드 제품에 대해 전체 40초 중 8초의 시간이 할애될 정도로 집중 조명이 됨으로써 시청자에게 자칫 해당 제품에 대한 간접 광고로 오인할 수 있겠다는 여지가 느껴졌습니다. 두 번째로 궁금증을 남긴 마무리에 대한 아쉬움입니다. 해당 뉴스 보도에서는 라면 상승률 13.1%에 대해 2009년 이후 최고의 상승률이라고 설명을 하다가 느닷없이 라면이 아닌 잼의 상승률 35.5%를 언급했고, 치즈와 어묵 등도 높은 편이었다는 마무리 멘트와 함께 화면에는 계속 진열된 라면 상품의 모습만 계속 비춰질 뿐 별다른 정보가 전혀 없었습니다. 당시 뉴스에 대해 라면 13.1% 와 잼 35.5%라는 수치 차이 때문에 '뭐지?'라는 의아함만 남긴 채 이해를 하지 못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때의 궁금증은 6월 19일에 보도된 [김대호의 경제읽기] 라면 값 1년 새 13.1% 상승...추경호 "인하해야" 코너를 시청하면서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6월 19일 이 뉴스를 접하지 않았을 시청자 입장을 감안할 때, 당초의 뉴스 보도에서부터 인포그래픽이나 자막 등을 활용한 정보 제공이 이루어졌다면, 시청자로서도 한결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연합뉴스TV가 평소 시각적 정보 제공에 신경을

잘 쓰고 있었기에 이런 부분은 '옥에 티'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청자의 이해를 제대로 돕기 위해 적극적인 시각적 정보 제공에 신경을 잘 써주시길 바라며, 언제나 연합뉴스TV의 알차고 유익한 뉴스 보도에 건승을 기원합니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 이 부분은 짧은 단신 기사의 영상 편집상의 문제 같습니다. 짧은 단신에서 라면 브랜드 여러 개를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제한된 여건에서 불가피하게 다양하게 보여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 말씀하신 대로 경제 기사에서 그래픽이 들어가면 좋긴 좋습니다. 수치와 비교 대상이 많기 때문에 그래픽을 활용하면 좋은데 그래픽은 일반 영상에 비해 노출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합니다. 시청자들이 제대로 그래픽의 내용을 파악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에 그래픽을 넣지 못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리포트였다면 그래픽 삽입 처리했을 겁니다. 제작 실무의 애로점이 있다는 점 양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라면이 나오다가 갑자기 잼이 나오는가'라는 말씀이신데요. 제일 많이 오른 품목이 라면이 아니라 잼이었습니다. 잼을 제목으로 하기보다 라면을 제목으로 하는 게 시청자들이 보기에 더 친숙하게 와닿기 때문에 라면을 중심으로 기사를 작성했고 말미에 가장 많이 오른 잼의 인상률을 덧붙인 것입니다.

▲ 손영준 위원장

추승호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연합뉴스TV가 사실 실제적으로 적은 인력으로 24시간 방송을 운영하다 보니까 상당히 성장하고 발전하는 부분도 있지만 아직 또 좀 보태야 될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들은 아마 회사 측에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판단을 드리고 이번 달에도 우리 시청자위원님 분들께도 아주 담백하게 평가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청자 위원분들은 다 똑같이 연합뉴스TV가 더 발전되고 또 함께 노력하신다는 것과 우리가 옆에서 성원한다는 점에서는 한마음 한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하실 말씀 혹시 있으시면 해주시길 바랍니다. 없으시면 그러면 이번 달 연합뉴스TV 시청자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끝)